

공공도서관의 독서문화조성을 위한 바람직한 서비스 방안 연구

- 안양시 사례를 중심으로 -



글·정 문 택 / 대림대학 문헌정보과 겸임교수

1. 들어가는 글
2. 독서진흥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3.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독서 서비스 사례
 - 가. 독서치료 운영사례
 - 나. 기타 독서관련 서비스 운영사례
4. 안양시 사서직 혁신과제 추진계획
 - 가. 안양시 공공도서관의 장서기반
 - 나. 안양시 사서들의 혁신과제 추진개요
 - 다. 독서정보서비스 세부추진계획
5. 맺는 글

1. 들어가는 글

새로운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발달로 우리는 미래공상과학 영화에서나 가능했던 유비쿼터스(Ubiquitous) 세상을, 즉 공간혁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환경은 개인이 네트워크에 접근하여 정보의 바다에서

필요한 정보를 뛰든 알아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원격으로 사물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사회변화는 도서관의 기능 또한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급박한 위기감과 사서직의 존립기반 자체까지도 흔들리게 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문명의 발달로 인해 생활환경은 편리해졌으나, 사람간의 의사소통 단절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그 예로 범죄율의 증가, 특히 청소년 범죄의 증가, 가족공동체의 붕괴,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 등 그 폐해는 헤아릴 수조차 없다.

이러한 사회문제의 해결방법으로 떠오른 대안이 '책'이다. 즉 책읽기를 통하여 인간내면의 본성을 회복하는 의미로, 공공도서관에서는 화두로 떠오른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새로운 이용자 정보봉사체제를 혁신하여 수립하는 것을 당면과제로 알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 독서진흥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지식정보화시대에 독서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동서양을 비롯하여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성공한 사람 뒤에는 항상 책이 있었다. 결국 책을 좋아하지 않고, 책을 스스로 잘 읽지 않는 사람은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무기가 없는 사람과 같은 것이며, 이것이 바로 정보화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데 반드시 독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학습전략 및 학습방법 연구가들의 연구결과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독서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관광부와 한국출판연구소가 발표한 2004년 국민독서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성인(1,000명 표본조사)중 책을 한권이라도 읽은 사람의 비율은 76.3%이며, 한권도 읽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월평균 독서량은 0.9권으로, 아직도 미국 6.6권, 일본 6.1권, 프랑스 5.9권 등 선진국에 비하면 독서율이 많이 뒤떨어지고 있다.

특히, 연평균 도서관 이용율(24.7%)도 유럽평균(29.8%)에 비해 낮아, 독서선진국인 핀란드(67.8%), 스웨덴(65.3%)에는 비할 바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2,700명 표본조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독서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책을 안 읽는다는 사실은 우리 청소년들이 입시 위주의 공부로 인하여 폭넓은 독서를 하지 못하는 사회상을 반영한다. 대학생들은 조사대상에서 빠져있지만 취업준비를 위한 자격증 및 외국

어 공부 등에 몰두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책 읽는 문화가 성숙하는 데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민들의 지속적인 독서진흥을 위한 일시적인 캠페인보다는 문화 인프라의 구축, 즉 공공도서관의 확충을 통한 독서진흥시책 마련으로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좋은 책에 관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전파되고, 그것을 공공도서관에 가면 접할 수 있도록 독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공공도서관은 꿈과 희망을 주는 가장 중요한 평생교육기관이며, 정보원이다. 또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문화활동 공간이요, 자기교육의 장이며,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되는 종합적인 사회교육센터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을 미래를 준비하는 정보 활용 능력을 키우고, 평생 동안 자기학습을 할 수 있는 마스터 키(master key)로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3.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독서 서비스 사례

가. 독서치료 운영사례¹⁾

- 성남도서관 「독서상담실」 운영사례
경기도립성남도서관에서는 [독서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독서길잡이]는 독서의 기본이론, 독서방법, 독서를 위한 참고자료 등을 제공하며 [독서정보]를 통하여 독서자료, 독서관련소식 등 유용한 독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 한국도서관협회, 2004,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성인편)

- 울산남부도서관 「마음 아픈 이들을 위한 자가 치유 도서목록」 운영사례

울산남부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이용의 활성화와 책읽기를 통하여 스스로 정서적,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마음 아픈 이들을 위한 자가 치유 도서목록」을 선정 배부하고 있다.

- 부산남구도서관 「마음 아픈 이들은 남구도서관으로 오세요」 운영사례

부산남구도서관에서는 어린이편, 청소년 편, 성인편으로 나누어 상황별로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어린이편에서는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 자신이 없어요 등이며, 청소년 편에서는 문화적 상상력을 길러주는 책, 세계시민으로 살아가기, 어떻게 살 것인가, 십대의 감수성을 길러주는 책, 성인편에서는 아픈 마음을 이해하는 책, 아픈 마음을 치료하는 책 등이다.

나. 기타 독서관련 서비스 운영사례

- '책읽는 서울' 캠페인²⁾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춘)은 서울시내 31개 공공도서관과 함께 2004년 9월 '책읽는 서울'이란 이름으로 독서문화 캠페인을 열었다. 이 캠페인은 위기에 처한 기초예술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독서운동부터 시작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으며, '책읽는 서울-기초예술 책부터 시작이다'라는 주제로 9월 4일 서울광장에서 '책읽는 서울' 개막식을 열고 책 만들기 체험, 인쇄체험, 책나눔 장터, 기초예술서적 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가졌으며, 이후 서울시내 공공도서관을 중심

으로 독서문화 활성화를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

- 북스타트 운동³⁾

울산남부도서관은 영아독서운동인 북스타트 운동을 하며, 부모와 아이가 자연스럽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서관 1층에 30평규모에 약 6,000여권의 도서로 영유아자료실을 만들어 운영중이며, 보건소, 소아과, 병의원 등에 북스타트 운동을 소개하는 책자를 비치하는 한편,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여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 모든 시민 참여 책읽기⁴⁾

순천시는 정채봉 작 「스무살의 어머니」를 올해의 책으로 선정하고, 중앙도서관과 연향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마을별 작은 도서관, 시청 민원실 등에 비치하여 수시로 책을 무료대여해 주며, 시민들이 흥미롭게 독서할 수 있도록 독서토론회와 문학 강연회, 가족 독서대회 개최, 청소년 연극발표회,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 독후감 대회, 산사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 '행운의 책' 선물운동⁵⁾

충북 제천도서관의 행운의 책(Lucky Book) 선물운동은 한편의 책을 읽은 시민이 행운의 스티커를 붙여 주변 친지에게 선물하고,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 책을 읽은 뒤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등 7차례 이상 책을 돌려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제천시민의 큰 관심을 끌면서 독서 붐을 조성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위의 사례들처럼 타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도서관에서도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독서의 중요

2) "서울문화재단 독서문화 캠페인", <서울경제신문>, 2004년 8월 30일

3) "태어난 아이에게 책 읽어줘요", <한겨레신문>, 2005년 1월 26일

4) "순천 모든시민참여 책읽기, 올해의 책 선정 무료배부", <경향신문>, 2005년 3월 15일

5) "좋은책을 돌려보세요, 제천도서관 스티커붙이기 운동", <조선일보>, 2005년 1월 27일

성을 직시하고 지역주민의 독서진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을 통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따라서 필자가 근무하는 안양시에서는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독서치료분야와 함께 현장에서 일하는 사서들의 독서정보서비스 창출 및 계획을 통하여 평생학습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에게 유익한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서직 혁신과제로 시민 독서정보제공 서비스를 추진하게 되었다.

4. 안양시 사서직 혁신과제 추진계획

가. 안양시 공공도서관의 장서기반

최근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총 68개의 공공도서관중 안양시의 도서보유율은 1.15권으로 상당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초에 계획을 수립하여 약 2년에 걸쳐 완료한 시책사업 <60만권 도서 모으기>운동의 성공적인 추진결과로 볼 수 있다.

당시 60만 안양시민이 1인 1권 도서보유를 목표로 각계각층의 안양시민과 단체, 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성있고 상호 유기적인 기증도서 접수창구마련을 통하여 총 370,000여권의 기증도서를 확보하게 되었다.

교육부가 2008년부터 교과별 독서활동을 평가하고 이를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독서 이력철'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 뒤, 독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주5일 근무제의 도입과 함께 문화적 여가를 도서관에서 보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도서요약서비스 제공이야말로 사서직이 해야 될 최고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도서관을 건립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 왔다면 이제는 양질의 독서정보제공을 위해 전 직원이 뜻을 모아 독서환경 조성에 다같이 힘써 나가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사서직 35명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차별화된 독서정보 창출 및 제공으로 시민들의 독서경쟁력 강화 및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함을 '사서직' 핵심역량 개발의 주요 추진과제로 보아야 될 것이다.

나. 안양시 사서들의 혁신과제 추진개요

- 1) 서비스 주체 : 안양시 4개 시립도서관 사서 35명
- 2) 기 간 : 2005년 4월부터 지속적 추진
- 3) 예 산 : 비예산 원칙(일부 예산사업 포함)
- 4) 조직구성 및 담당업무
 - 단 장 : 도서관 혁신업무 총괄
 - 반 장 : 혁신업무 계획수립 및 평가점검
 - 자료발굴 : 혁신업무 자료발굴 등 계획
 - 자료정리 및 요약 : 시민제공의 독서정보 자료의 정리 및 요약
 - 자료홍보 : 각종 시책사업의 홍보업무추진
- 5) 정기모임 추진

보다 나은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 기획하기 위한 연구모임을 월 2회(매월 첫째주 목요일, 매월 25일) 진행하여 월별 사업평가와 점검을 체계화 하고, 사업추진을 진행하며 향후에 나타나는 개선사항을 다음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추진 - 평가 및 점검 - 개선사항 추진'이라는 사이클로 Feedback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 독서정보서비스 세부추진계획

- 1) 사서들이 직접 만든 도서요약서비스 운영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독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기에 시립도서관 사서들이 매일 어린이도서, 청소년도서, 일반도서 중 양서를 선정하여 독서 후 원고지 10매 이내로 도서요약서비스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독서정보의 재생산을 통한 시민들의 독서력 강화 및 독서편의를 증진하여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적극 기여토록 한다.

도서요약서비스를 통하여 도서관 사서들은 소장도서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독서정보에 대한 참고봉사 전문가로서 역량을 강화하여 이용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서로서 도서관 핵심자인 도서를 활용한 서비스의 개발을 소홀히 하였으나, 사서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최일선의 도서 전문가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고유 업무영역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대목이다.

도서요약시 도서선정기준으로는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책, 건전한 가치관 확립에 기여하는 책, 학문, 지식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책, 독자의 흥미분야와 지식을 충족시키는 책, 언어와 문장의 사용이 바르고 정확하게 쓰여진 책, 저자가 분명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쓴 책, 책임감 있고 평판이 좋은 출판사에서 낸 책, 창의성과 예술성이 돋보이는 내용이 충실한 책 등이다.

2) 주제별 서지정보 목록서비스 제공

4개 도서관 자료특성화 계획에 따라 주제를 분담 후 다양한 상황별 맞춤 서지정보를 개발하여 이용자의 문제해결능력 향상 및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통한 독서치료 효과를 제공한다.

최근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례를 보면 주제전문 사서를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각 자료실 담당자들에게 개인별 담당주제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

으며, 담당주제의 신간도서 구입, 세미나 참석, 학계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게 하고 있으며, 담당주제에 대한 참고봉사 서비스 절차를 기록으로 남겨 계량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도서관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사서직원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안양시에서는 60만권 도서모으기 사업과 함께 도서관별 자료특성화 운영계획에 의하여 4개 도서관이 주제분야를 정하여 장서확충을 하고 있으며, 석수도서관의 경우 순수과학과 전자매체 자료, 평촌도서관은 사회과학, 향토자료이며, 만안도서관은 기술과학분야, 호계도서관은 문학/논술, 창업자료 등을 중점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각 도서관에서는 확보된 주제분야별 장서 중에서 세부주제를 선정하여 연관성 있는 자료의 서지정보를 추출 재구성하여 시민에게 제공토록 하고 있다. 세부주제 선정시 유의사항으로는 주제의 시의적절성 즉, 사회문제나 화제가 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이용자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담당사서는 항상 각종 정보습득 채널을 활용하여 담당주제와 연관성 있는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는 등 주제전문사서로서 역할수행능력과 자질을 길러야 한다.

주요 주제별 목록사례로는 어려운 과학과 친해지고 싶은 책, 학교폭력의 실태와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책, 우울증이 아닐까 의심될 때 도움이 되는 책, 꿈의 사업 '인터넷 쇼핑몰' 창업하고 싶을 때 읽어야 하는 책 등 시민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목록이 있으며, 자아의 성숙과 고민해결,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인간심리 및 세상은 지혜를 얻고 싶을 때 읽어야 하는 독서치료용 도서목록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별 목록을 계층별로 생산해내고 있다.

3) 신착자료도서코너와 신간안내 서비스 운영
도서관에 입수되는 신간자료에 대하여 각 자료실내 별도의 코너를 마련 배가하고 이용토록 함으로써 이용시민으로 하여금 자료에 쉽게 접근될 수 있도록 필요한 때에 필요한 책을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최신간도서와 베스트셀러 등은 이용시민들의 수요가 많으므로 이용자가 찾기 쉽도록 별도 비치하여 이용하도록 서비스하며 모든 신간도서에 대하여 별도 비치하는 것이 아닌 이용자의 수요가 많은 문학류와 예술, 철학 등의 인문과학도서에 대해서만 별도 비치하도록 한다.

또한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베스트셀러 등에 대하여는 복본을 구입하여 관내열람과 관외대출을 병행하도록 하고 약1개월간 운영하고 새로운 도서로 교체하며, 신간도서 목록을 별도 비치하여 검색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제별 신간도서의 책표지를 게시하여 이용자의 독서흥미를 유발하는데 기여토록 한다.

4) 안양시 도서관 독서정보 소식지 및 독서문집 발행

4개 시립도서관의 문화행사 및 각종 이용안내와 신간안내, 도서대출베스트 등을 수록한 도서관소식지(월간)와 도서요약 및 주제별 서지정보 등의 독서정보를 상세하게 수록한 독서정보소식지(계간), 도서관 주부독서회와 어린이독서회의 글모음과 시민들이 도서관 문화교육 수료 후 작성한 독서감상문을 모아 독서문집 '안양사랑'(연간) 등을 발행함으로써 시민의 독서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한다. 각 도서관별로 1~2명씩 편집위원을 구성하여 도서관소식지, 독서정보소식지 및 문집 발간에 따른 자료수집 및 편집회의를 거쳐 수록내용에 내실을 기하고, 전국도서관 및 시

민들에게 배부하여 기초 독서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도서대출 베스트 순위 작성 제공

각 도서관별로 도서대출이 가장 많이 된 도서를 5권씩 월별로 집계하여 도서대출 성향을 분석하고 목록 및 간략정보를 제공하여 도서관별 도서대출 실태 및 추이를 알 수 있도록 한다. 도서관별로 주제분야별 대출순위를 집계하고 일반도서, 청소년도서, 어린이도서로 구분하되 만화, 무협지, 판타지류 등은 제외토록 한다. 도서의 내용이 건전하고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도서를 위주로 선정하여 요즘 가벼운 책만을 선호하는 독서회원의 독서성향을 변화시키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또한 다독자에 대하여는 도서관 주요행사인 4월 도서관주간 및 9월 독서의 달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시상함으로써 독서를 권장하는데 기여한다.

6) 사서들이 추천하는 이달의 도서목록 제공

도서관 특성화 주제별로 일반도서와 어린이도서를 대상으로 각각 5권씩의 추천도서를 현장 사서들이 직접 선정하여 매월 총 40권의 도서관략정보 작성 및 제공으로 독서흥미를 유발한다. 도서선정방법은 내용이 도덕적, 정서적으로 건전하고 생명존중, 환경보호, 공동체 사랑의 정신이 들어있는 책, 활발히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책, 삽화의 작품성이 우수한 책, 어린이도서는 우리정서가 담긴 우리작가의 그림책도서를 우선 선정하며, 사서들이 추천하는 이달의 도서를 읽은 도서관 이용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사행시 짓기, 100자 서평, 독서토론회, 독서퀴즈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 운영하여 독서시상기회를 확대하고 독서에 대한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한다.

7)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권장도서목록 배부
독서와 관련 있는 권위 있는 단체나 기관의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권장도서목록을 배부함으로써 양서선별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충실한 시민 독서길라잡이 효과를 창출한다.

권장도서목록의 종류로는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의 영유아 권장도서목록과 초등학교 학년별 권장도서목록,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이달의 읽을만한 책과 청소년을 위한 좋은 책, 문화관광부의 문화관광부 추천도서와 우수학술도서, 대한출판문화협회의 한국어린이도서상 수상작목록, 과학기술도서상 목록, 그리고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전국 14개소에서의 서점판매량을 종합한 베스트셀러목록 등이다.

8) 서비스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통한 도서요

약 콘텐츠 정보활용을 증대

신간도서의 5%(A4용지 10매)내외의 분량을 갖춘 도서요약 콘텐츠로 30분 정도면 책 한권의 전체 내용 파악이 가능토록 하는 “도서요약서비스” 제공업체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하여 안양시 도서대출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경쟁력 증진은 물론 평생학습사회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경기도 김포, 용인, 평택, 파천, 안산) 등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자기계발과 조직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도서요약서비스를 실시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우리시는 도서관이 주도하여 도서관 도서대출회원을 대상으로 도서요약서비스를 실시하여 함축된 독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바쁜 현대인에게 독서시간을 단축 시켜주며 독서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서요약콘텐츠로 제공되는 요약본은 크게 인문교양(인문과학, 역사예술, 건강과 여가, 국내외문학), 경

제경영(자기계발, 경영전략, 재테크, 마케팅, 투자), 교육(수능 및 논술, 어린이, 자녀교육) 등의 카테고리로 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추천도서, 새로운 도서, 분야별 인기도서, 테마가 있는 도서로 구분하여 이용자들의 독서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으며, 매월 30권의 신간도서요약이 업데이트 되고 있다. 선물축제 독서이벤트를 실시하여 매월 업데이트 되는 신간도서에 대한 독서퀴즈를 실시하여 정답자를 추첨 후 신간도서를 선물로 전달함으로써 이벤트를 통한 독서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9) 홍보방안

사서들이 직접 생산하는 각종 독서정보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안양시립 4개 도서관에서는 각 도서관 현관입구나 자료실 입구에 독서정보전용 게시판을 설치하여 도서관이용자에게 정보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실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특히 안양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독서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하여 내부행정망인 ‘포동이 광장’ (표준전자문서시스템) 게시판에 자료를 지속적으로 갱신하여 공무원들의 독서흥미 유발을 통한 자기계발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또한 매월 시청에서 발행하여 안양시민에게 배부되는 시정홍보지 ‘우리안양’에 독서정보제공란 1면을 고정으로 배정받아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이 독서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언론사 및 방송사, 시정뉴스, 안양시청과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치는 한편, 도서관 소식지(월간), 독서정보소식지(계간), 독서문집(연간), 도서관 리플렛 등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배부하는 등 on-line과 off-line을 통한 모든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도서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5. 맺는 글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다. 이제는 문화 또한 국적과 상관없이 경쟁력 있고 가치 있는 것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으며, 이러한 고부가가치 문화 창조력의 바탕은 독서에서 비롯되며, 독서에 대한 투자 없이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이처럼 독서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 맞추어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는 「2005청소년 책읽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전 국민적인 독서진흥운동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전국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연대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독서진흥을 위하여 다채로운 독서관련 행사를 펼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우리나라의 미래가 한층 밝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도서관에는 생각보다 많은 자료가 쌓여있다. 이들 자료에 또 다른 생명을 불어넣어 적실성 있는 정보가 되게 하는 것이 사서직의 소임이 아닐까 싶다. 지금까지 도서관 장서 불리기에 주력해 왔다면 이제는 장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보다 많은 2차 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도서관 상호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제공한다면 훌륭한 독서정보원이 될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사서직의 전문성 확보와 서비스영역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지금부터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2006년 IFLA 서울대회를 앞두고 있다. 전 세계의 도서관인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이다. 2006년 서울대회를 앞두고 도서관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독서의 붐을 조성하기 위한 각 도서

관들의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더불어 2006년 IFLA 서울대회를 계기로 우리나라 도서관이 한층 발전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을 가져본다.

“책”과 “도서관”과 “사서”가 함께 같은 곳을 같은 생각으로 바라본다면, 책이라는 막강한 치료제를 통해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적이고 습한 기운을 긍정적이고 따뜻한 기운에 흡수시켜서 건강한 힘이 흐르는 사회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민독서진흥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손정표. 2001, 『신독서지도방법론』, 태일사.

신주영. 2004, 『독서치료와 도서관의 역할』, 한울아카데미.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연구실. 2002, 『책은 치유하는 힘이 있는가』,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한국도서관협회. 2004, 『상황별 독서목록 : 성인편』.

【신문자료】

“서울문화재단 독서문화 캠페인”, 〈서울경제신문〉, 2004년 8월 30일

“태어난 아기에게 책 읽어줘요”, 〈한겨레신문〉, 2005년 1월 26일

“순천 모든시민참여 책읽기, 올해의 책 선정 무료배부”, 〈경향신문〉, 2005년 3월 15일

“좋은책을 돌려보세요, 제천도서관 스티커붙이기 운동”, 〈연합뉴스〉, 2005년 1월 27일

【인터넷자료】

문화관광부. 2005, 2004 독서실태 조사결과서

문화관광부. 2005, 2005년 청소년 책읽기운동

디지털 시대의 공공도서관 (<http://www.icc.ac.kr/stu/mun/sun2-5-9-8.htm>)